



#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

– 아시아물위원회(Asia Water Council; AWC) 창립총회 –



**김도곤**  
국토교통부 수자원산업팀장  
kd77kon@hanmail.net



**김영우**  
K-water연구원 연구기획처장  
youngwk@kwater.or.kr



**김수영**  
AWC 플래닝 디렉터  
suyungkim@kwater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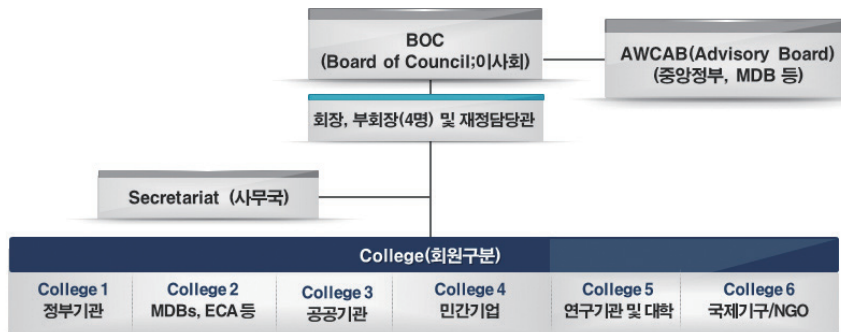


**고석훈**  
AWC 플래닝 매니저  
kshbin@kwater.or.kr

지난 3월 아시아 지역 물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을 기치로 ‘아시아물위원회(AWC)’가 창립 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였다.

AWC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(2015년 4월 12일-17일, 대구 및 경주)의 준비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도로 구성된 물관련 고위급 회담 AWHoT(Asia Water High level Round Table)을 전신으로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창립이 발의 되었다. 이에 따라, 두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국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 정부·국제기구·다자간개발은행 등 다양한 회원간 논의를 통해,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AWC의 차별화된 운영 메커니즘,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논의 되었으며, 그 결실을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.

이번 AWC 창립 총회는,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발리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, 몽골, 방글라데시 등 장차관급 6명을 포함



AWC 조직구성

해 UNFAO,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 및 World Bank, ADB 등 26개국 105개 회원기관에서 총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
특히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뽑을 수 있는 점은, 이렇듯 다양한 아시아 정부, 민간 및 국제기구 등 영향력 있고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물 분야 협의체로서 외연을 갖추고 국내·외의 공인을 받았다는 점, Water Projects 등 물 문제에 해결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추구하는 AWC의 독창성과 더불어 체계적 로드맵 설정과 이의 추진을

위한 강력한 리더십, 원만한 국제회의 운영 등 국제조직으로서 그 역량을 증명하였다는데 있다.

창립총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부 및 외교통상부 등 국내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력의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, 국외 회원기관으로부터 AWC 사무국 인력 파견 및 아태물포럼(Asia Pacific Water Forum; APWF)과 같은 주요한 아시아지역 협의체 등 국외 회원기관의 협력 제의가 잇따랐다. 이는 AWC의 지속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형성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다.



### AWC 창립총회 주요 내용

#### 1. 제1차 하이레벨 패널 토론

- ADB 부총재, 방글라데시 장관, CEO 등 고위급 20명 참석
- 물 현안 논의 및 아시아물위원회 미션과 비전에 대한 의견 공유

- \* 국제기구 : ADB 부총재(물산업 재정계획), UNESCO(Trans-boundary 이슈, IHP 관련)
- \* 한 국 : K-water(Smart Water Management), 국토부(WGG와 성공적 7차 World Water Forum 계승 필요), Koica(재원지원 현황 및 주요분야),
- \* 기타국외 : 캄보디아(메콩강유역 물문제 제시), 몽골(물부족, 지하수고갈 및 수질오염 등), 태국(물관리 개선방안 제시), 우즈베키스탄(아랄해 물문제 제언)



하이레벨 패널토론 모습 및 단체사진

### 2. 1차 총회 개최

- 총 25개 이사기관 확정 (창립멤버 13개 기관 및 선거를 통한 11개 기관 선출)
  - \* 한국 총6개 이사기관 : K-water, 국토부, KOICA, 대구시, 농어촌공사, 한국물포럼
- AWC추진경과, 구성, 주요사업 및 정관(안) 보고



창립회원 기념식



AWC진행경과 설명

### 3. 1차 이사회 개최

- 제1대 회장, 부회장(4명), 재정담당관 등 집행이사진 선출

- \* 회 장(1인) : K-water CEO
- \* 부회장(4인) : 인니 물협회 회장(Dr. IR Firdaus Ali), 중국 수리부 국장(Mr. Liu Zhi Guang), 태국 왕립관 개청 부청장(Dr. Somkiat Prajamwong), 프랑스 @qua 대표(Dr. Philippe Gourbesville)
- \* 재정담당관 : 열대해양연구소 원장(Dr. Shie Yui Liong)

- 제2, 3차 이사회 계획,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\* 준비회의 등 `16년 사업계획 보고
  - 2차 이사회 (`16. 7월 싱가포르국제물주간 연계 실시 및 WP 워크숍 개최)
  - 3차 이사회 및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준비회의 (`16. 10월 KWW\*\*연계 실시)
    - \* AWC와 아시아 회원국이 공동주최하는 국제 물주간(2017년 한국에서 1차 실시)
    - \* 7차 세계물포럼 후속조치로서 `16년 대구, `17년 경주에서 실시

- 7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및 우선실행과제/워터프로젝트 승인
- \* 9개 우선실행과제(Priority for Implementation; PFI)와 인도네시아 스마트워터기술 등 7개 Water Project 실행



이사회 집행이사진 구성



이사회 진행 모습

#### 4. 특별 세션(PFI & WP)

- 아시아 물관련 최고 의사결정자 패널토론을 통한 PFI 및 Water Project 실행력 제고방안 논의

- \* (WP 패널) K-water 사장, 인도네시아 수자원 연구원장, 태국RID 부청장, 중국 수리부 국장
- \* (PFI 패널) UNESCO IHP 사무총장, 중국 수리부 서기관, 캄보디아 차관, ADB 국장, 필리핀 전차관



패널 토론 모습

#### 5. 워터비즈니스포럼(Water Business Forum) 실시

- 국토부 및 한국물포럼 주관으로 기업간 및 기업·정부 면담, 기업홍보 세미나를 위한 국내외 24개 기업 31개 부스 운영
- \* 한국 중소기업 등 16개 및 델타레스(네), UNESCO 및 인도네시아 기업 등



부스 운영 모습

이와 같이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주도로 창립된 AWC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국제 물 협의체로서 'Smart Water를 통한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'을 실현하기 위하여 7개 특별위원회 의를 중심으로 크게 두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

**7개 특별위원회**  
Strategy & Policy, SWMI(Smart Water Management Initiative), Standardization, Water-Energy-Food Nexus, Water-Aid Program, Water Education, Knowledge Base & Dissemination

첫째는 우선실행과제(Priority for Implementation; PFI)이다.

이것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AWC의 7개 특별위원회로 선정하여 실행로드맵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. 아시아의 물 현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 해당 의제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두 번째는 Water Project이다.

아시아 국가로부터 제안된 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AWC의 특별위원회에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, 이것이 향후 프로젝트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. 물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AWC를 여타 다른 중심의 국제협의체와 차별화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.

또한 이와 같은 수행절차를 통해 Water Project는 물 산업 분야 발전에도 선순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. 즉, AWC참여를 통해 아시아 국가별로 우선순위 높은 물 현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,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시되는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단계 즉, 해당 현안의 프로젝트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향후 본 사업 진행단계에서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. 이러한 성과가 누적되면, 물 현안 해결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물 산업 분야의 발전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. 일련의 과정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구축과 정

보 및 기술의 습득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.

아시아는 다양한 기후와 인종분포, 경제발전의 차이로 인해 자연적 사회적 측면에서 거의 모든 양상의 물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지역의 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스스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.

AWC는 향후 총회 및 이사회 등 정규 활동과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아시아 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. 이에 따라, 오는 7월 싱가포르국제물주간시 실시되는 2차 이사회 및 Water Project 특별세션, 그리고 10월에 대한민국 대구에서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3차 이사회 및 제8차 세계물포럼 Kick Off 등 국제 이벤트를 통해 AWC의 활동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전세계에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.

아시아의 물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5%에 이르며 2025년에는 세계 물수요의 60%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력적 시장이나 현재 아시아 물 시장은 유럽 등 다국적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. AWC를 통해 아시아의 주체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,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물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.

대한민국으로서는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회원기관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고, 27개 이사기관 중 국가별 최다인 7개 이사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, 국내 물 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있다. 하지만, 이에 앞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확고한 물 산업 리더십을 획득하여 국내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성과를 얻기까지는 AWC가 아시아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동하여 그 취지를 잃지 않고 성장하도록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국내외 많은 학계 및 기업, 공공기관이 AWC에 참여하여 전문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아시아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써 활용하리라 기대된다.

